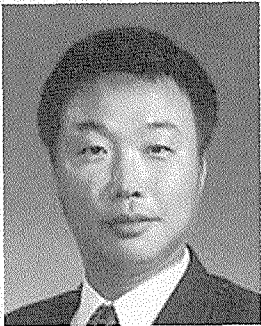


새천년 석유업계가 나아갈 방향



장 현 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90년대 이후 석유산업은 자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외형적으로 현재의 석유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곳곳에서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가격이다.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산업들은 제 나름대로의 포부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새천년은 IT(Information Technology)혁명, 환경규제 강화, 범세계화(Globalization)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의 파고속에서 각 산업들은 생존의 길을 찾아 고민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석유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석유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새천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크게 달라져 왔고, 앞으로 그 변화의 폭은 더욱 크고 넓어질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면서 우리 석유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짧게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석유산업의 주변환경은 격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중심적인 산업체제에서 시장 중심적인 산업체제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들 수 있다. 99%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의 특성상 거의 모든 에너지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하에서 성장해 왔다. 석유업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산업구조에서부터 석유가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실상 '석유시장'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석유산업은 자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외형적으로 현재의 석유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곳곳에서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가격이다. 하지만 석유가격 역시 최근에 세계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시피 결국은 시장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각 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의 흐름, 즉 정부에서 시장으로의 무게중심 이전은 국내 석유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석유업계 스스로의 체질개선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하에서는 석유시장 참여자들은 각 사의 발전만을 추구하면 되었고,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조정엔 정부가 수행하

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은 각 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석유산업은 다음과 같은 보다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시장원리가 강조됨에 따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경쟁의 참뜻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는 경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석유시장 참여자들은 경쟁이라는 의미의 “Compete”는 본래 “Seek together”라는 의미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관심사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국내 석유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참여자에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공정한 경쟁과 원칙이 준수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상생(相生)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더하여 국내 석유산업은 석유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수직적인 통합관계와 수평적인 연합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석유제품 소비구조가 상이한 많은 국가들의 석유제품 유통 부문에도 참여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의 석유산업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석유소비를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직접적인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목표에서 탈피하여 동력, 빛, 열과 같은 에너지 서비스의 환경친화적 공급이라는 다차원적인 목표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즉 석유제품을 이용한 발전사업과 지역난방사업에 적극 진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보일러 등 석유제품 이용기기 제조업에의 직접적인 참여 또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1세기에는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름마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회사명에 “석유” 또는 “정유”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에 “에너지서비스”나 또는 고유명사가 사용될 것이다. 석탄, 석유와 같은 특정한 에너지제품이 더 이상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제품들을 바탕으로 에너지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으로, 그리고 각 소비자들의 성향에 적합하게 안정적으로

국내의 석유시장 참여자들은 경쟁이라는 의미의 “Compete”는 본래 “Seek together”라는 의미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사의 관심사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국내 석유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공급하느냐가 더 큰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종합 에너지 산업화라는 표현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보다는 빛과 열과 동력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종합 에너지서비스 산업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석유업계는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술발전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기존의 에너지 공급방식이 한계에 부딪치는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 때마다 기술발전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연료전지의 탈탄 기술(脫炭:Decarbonization Technology)과 같은 획기적인 에너지서비스 공급방식의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기술발전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스스로의 핵심역량 배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21세기에는 무점포 판매방식이 국내 석유산업에도 도입될 것이다. IT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에너지서비스 생산자와 최종소비자간의 간격이 좁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소비자들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에너지서비스 생산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하게 되고 주문을 직접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자는 각 지역별 통제센터를 중심으로 최종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즉 몇몇 에너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현행의 체계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와 에너지서비스 생산자를 연결하는 IT시스템이 교란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산업의 비전은 현재 국내 석유산업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성숙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간에 신뢰관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찾아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진취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기 위해서는 국내

국내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성숙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유회사-대리
점-주유소간에 신뢰관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찾아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석유산업 종사자들이 미지의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동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석유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대응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이유들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우리 석유업계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기술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내 석유회사들의 자라는 방대한 규모의 기술연구소와 전문인력 확보가 되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이 개발되고 세계 기술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석유산업이 미래의 범세계적인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될 것이다.

한국 석유산업은 이제 큰 시련기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 석유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기에 익숙해 있는 경영전략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석유산업에 대한 환경제약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갈 것이다. 또 국내 석유시장이 자율화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인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지혜를 모은다는 것은 눈앞의 이익과 같은 단기적인 지향점을 모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담보로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어닥칠 국제적 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한 스스로의 체질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체질개선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원칙준수라는 기본적인 시장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경쟁의 중심에 뛰어들겠다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 석유산업의 CEO들과 종사자들에게 이런 친취성이 갖추어졌을 때 미래는 더욱 밝지 않을까. ♪

한국 석유산업은 이제 큰 시련기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 석유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기에 익숙해 있는 경영전략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